

IMF시대의 식생활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이진영* · 이혜임**

서울보건대학 식품영양과*, 서울보건대학 유통과학과**

(1999년 7월 15일 접수)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ood Life in IMF Age

Jin-Young Lee * and Hye-Im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College*, Dept. of Distribution Science, Seoul Health College**

(Received July 15, 1999)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ge on the household behavior of food consumption and analysis the related factors(demographic variables, family life style) to find out the reasonable consumer's consciousness and food market condi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life style and food life style, considered as family life style, were classified into 7 types and 9 types respectively as family life style by factor analysis.
2. The rationality of using and disposing stage on food life has increased, the rationality of the planning stage on food life has decreased since the IMF age began. But the rationality of overall food consumption has hardly changed.
3. The amount of purchasing was decreased, discount store was favorite place to buy food, and safety and freshness were major determinants in purchasing for most of food items. But this was different with food items. The various information sources were used impartially to buy food, cash was used mainly, and the degree of using the discount ticket/coupon was a little low.
4. Income level is an influential factor on the rationality of the planning and purchasing stage on food life, while environment-oriented food life style has influenced on the rationality of using and disposing stage. The purchasing amount of grain products, meats, milk products, bread and snacks, drinks, alcoholic drinks, water and convenience goods has influenced by demographic variables, eating out had been influenced by general life styles, and fruits, healthy foods, processed foodstuffs, favorite foods, vegetables · seaweeds, import foods and seafood had been mainly influenced by food life style since IMF age began.

Key Words : food life, consumption, IMF, life style

I. 서 론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통

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생산증대와 서비스직종의 확대를 가져왔고, 대량생산 · 대량공급 ·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처리, 관리, 공급,

+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보건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유통의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게다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유통 형태가 발달되면서 대중소비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93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유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자의 변화, 상품의 개성화 및 고급화로 고소비사회가 출현됨으로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도 다양화되어 고급화·대형화형 소비패턴이 자리잡게 되었다¹⁾

그러나 소비부문의 비중이 증대된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생활하던 소비자는 1998년 이후 IMF시대 진입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 고물가에 의해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의식과 보다 저렴하고 실속적인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는 소비태도가 가정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른 외식의 증가도 차츰 그 범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경제 위기 극복과 가족의 새로운 소비의식 및 소비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가격지향적 판매, 미끼 판매 등 다양한 판매 형태와 할인점, 아울렛 스토아 등 다양한 유통업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고가 및 저가로 양분화되거나, 리필제품 더 사기,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실속있는 제품 구매 및 점포선택 등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2-12,28)}

이처럼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주체가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진실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지향적·사회지향적 마케팅 철학에 입각한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품생산 및 유통구조 개발에 대한 경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²⁾. 따라서 IMF 시대에서의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이에 따른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 및 의식 수준의 선진국화와 더불어 건강증시로 식생활 분야에서의 고급화 및 개성화와 편리성 및 기능성 지향으로 변화되면서 식생활 분야에 대한 소비패턴 및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¹³⁻¹⁷⁾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 소비 생활 가운데 식생활은 가장 긴요도가 높은 분야이며, 경제발전에 따른 선택적 식생활분야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은 경기변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¹⁸⁾ 1저 4고 IMF시대에서는 식생활 분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문화 창출을 위한 소비자의식 고조 및 시장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IMF 체제 1년을 기점

으로 IMF이후의 생활양식 변화와 그에 따른 식생활 패턴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밝힘으로써, 건전한 식생활분야의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제시, 소비자의 효율적인 소비행동, 생산자의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유통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IMF 시대의 생활양식과 소비자행동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란 국제 통화 기금으로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국제통화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무역이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거래관계인 만큼 한나라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 경제위기는 다른 나라들로 과급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¹⁹⁾. 그런데 한국경제가 왜 IMF관리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대기업의 방만한 운영, 타인자본의 비대, 정부관료권한의 비대, 정부의 부정부폐, 정치권의 민생외면, 무모한 시장개방, 구체금융의 압력, 경제관료들의 무책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자의 과소비(59.7%)로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의식이다²⁰⁾. 결국, 우리 모두에게 IMF는 충격으로 다가왔고(98.8%이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제상황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²¹⁾,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생활양식(life style)이란 중심적인 삶의 관심을 암시하는 것으로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행동을 결정한 방식이며, 구체적으로 행동, 관심, 의견법에 근거하여 “사람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소비행태의 다원화, 복합화로 점차 소비행동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설명력이 낮아져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관점을 도입하여 소비자행동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 21)}. 즉,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가치체계는 태도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소비성향에 대한 예측변수로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체제가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성찰,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함께 지나친 하이테크 지향, 개인주의적 사회경향에서 가족유대 강화, 향수 및 고향추구,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생

활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편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소비의식이 변화할 것이며 이는 축소지향형 소비, 목적지향형 소비, 가격민감형 소비, 가치중시형 소비, 심리적 위안감을 주는 상품인기, 소비시장의 다변화 등 확연한 소비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가위기에 대한 국민 의식 발동이 해외여행 자체, 국산품 애용, 사치품구매자제, 할인점 애용, 과소비감소, 교통난 완화, 절약정신 회복 등의 긍정적인 소비형태 변화로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불황침체기에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양식과 소비가치관을 수정하는 자발적 내핍 소비자 즉 절약형 구매자가 등장하여 계획쇼핑, 가치상품 추구 등의 보수적 소비성향을 지니거나, 생존차원의 소비행태를 위한 신중구매를 구사한다. 또한 합리적, 효율적 행동을 추구하고 자신의 판단력에 더욱 의존하며 스스로의 건강과 자기계발에 눈을 돌려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²¹⁾.

그러나 IMF관리체제 1년 경과이후 외환유동성 부족에서 일단 탈피하였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회복추세여서 금융시장이 안정회복세를 띠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였다. IMF체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국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맥시코, 인도네시아, 태국과의 종합비교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부문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위기극복에 급급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경제 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²²⁾. 특히 IMF 이전의 충동소비, 모방소비, 과시소비 등 잘못된 소비유형에서 계획적인 소비, 다양하고 바른 소비생활정보 활용, 신용카드·할부 이용 구매의 자체, 실용적인 구매, 올바른 사용 및 관리 그리고 생산적인 소비 등 합리적인 소비유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²²⁾.

2. 식생활 소비패턴

소비패턴이란 문화적 가치, 제도, 규범 등에 의해서 재화의 활용시 전개되는 복합적인 관계의 양상으로 정의하는데²⁴⁾.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초기적 현상으로 소비가 죄악시되고 재활용이 증가되며 절약정신이 강해지는 등 소비의식이 변화되어, 식생활관련 분야에서도 국산차를 이용한다든가 반찬수줄이기, 시장 덜가기, 외식줄이기와 음료·주류, 가공식품등의 구매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²³⁾. 즉, 한국가계의 소

비지출구조는 생존유지에 필요한 기초생활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선택적 소비가 가능한 항목의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IMF로 인하여 그 양상은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을 말하는 선택적 소비지출의 변화양상은 경기변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²⁴⁾. 따라서 풍요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선택적 소비지출(음료, 주류, 외식, 가공식품등)의 크기와 기초생활비는 IMF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비자행태의 영향요인은 소득이 외의 가족내 요인(가족형태의 변화, 가족규모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취업주부의 증가,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입식화), 기업의 영향(내구소비재의 대량생산, 각종 편의품 개발, 광고, 판촉등), 문화의 영향(대중매체, 여가문화의 발달) 등이 있다.

특히 가정생활 중 식생활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변화가 어려우나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점차적인 변화를 보여 생존과 허기의 만족이라는 단계에서 영양과 건강을 고려하는 질적만족 단계에 이르렀으며 전통식품의 상품대체, 가사노동 절약상품등의 사용, 외식이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이는 IMF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역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또한 가사 노동의 사회화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증가, 가계소득의 증가, 가공식품개발, 서비스 산업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수준에 못미치는 정도이다²⁶⁾. 그러나 IMF로 인한 가장의 실질 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가계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업 주부들이 대거 취업전선에 나섬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의 투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며, 가사노동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증가하고 이의 구매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가속화되는 등 더욱 시장의존가정이 되며, 서비스 상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IMF시대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양식과 구체적인 식생활분야 생활양식 항목을 IMF이후의 관련참고문헌^{2, 24)}, 신문기사²³⁾, 인터넷 검색자료^{9, 11)}등을 토대로 AIO(Activity, Interest and Opinion)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식생활 패턴은 개인적인 선호성이 있지만 식생활 분야는 어떤 특정한 가족 개인보다는 가족의 일반적인 기호를 고려하여 가족 전체가 동일하게 영위하는 삶이므로, 한 개인의 AIO보다는 가족 공동 AIO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생활 소비패턴의 영향변수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주부나 가족개인의 생활양식이라기보다는 주부가 인지하는 가족의 생활양식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이론에 근거하여 IMF 관리체제 1년 경과시점에서 가족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규명하고 소비패턴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의 생활양식(사회·경제·가정 생활양식, 식생활 양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계획단계, 구매단계, 사용·처분단계)은 어떠하며,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구매량 증감도)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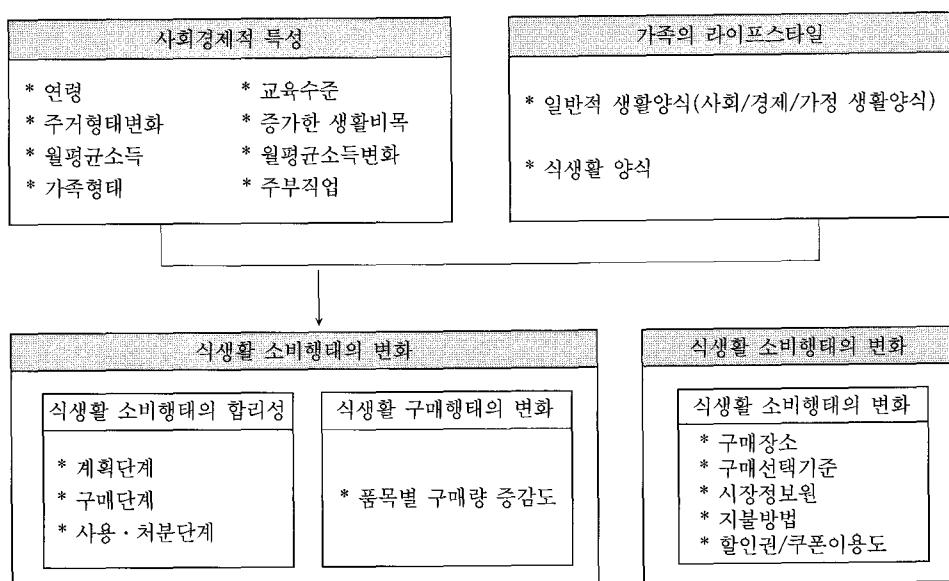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과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약 1개월간 개별 인터뷰 및 응답자 스스로의 기입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였고, 조사된 600부의 설문지 중 부실하게 응답하거나 잘못된 것을 제외한 554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주부의 연령, 교육 수준, 주거형태, 생활비 증·감소항목, 주부직업, 월평균 소득, 소득변화 증감도, 가족형태 등 총 8문항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의 생활양식은 사회/경제/가정생활양식과 식생활 양식으로 나누어 IMF 이후 조사·발표된 생활양식관련 선행연구^{2, 24)}와 신문자료²³⁾ 및 인터넷 자료^{9, 11)}를 참조로 각 35문항을 설정하여 예비조사(1998. 12. 1~12. 15)한 후 각 25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각 2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으로 묶기에 부적당한 9문항을 제외한 사회/경제/가정생활 양식 20문항과 식생활 양식 21문항 총 41문항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최종적인 가족의 생활양식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 정도는 계획, 구매, 사



〈그림 1〉 연구모형

용·처분단계로 나누었으며, 계획단계의 합리성 정도는 식단작성여부 정도와 식생활 개선 노력도 2문항으로, 구매단계의 합리성 정도는 계획구매 정도, 시장정보 탐색정도, 시장정보 활용도의 3문항으로,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 정도는 IMF 관리체제 이후 처분할 식품재료의 감소노력 정도, 식품재료의 잔여물 활용정도, 식사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정도, 그리고 쓰레기 감소 참여도 4문항으로 리커트형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메뉴작성시의 고려요인, 전처리 식품의 이용정도, 전처리 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용하는 이유 4문항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식생활 소비품목별 구매량 변화정도는 21개 소비품목(곡류, 육류, 유제품, 어개류, 채소·해초류, 과일, 유자류, 빵·과자류, 음료, 주류, 생수, 라면류, 육가공품, 편의식품, 건강식품, 국산차, 기호식품, 수입식품, 가족외식, 가정내외 손님접대, 가사편의품)별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구매장소는 21개 소비품목 중 음료와 주류 및 생수를, 라면과 육가공품 및 편의식품을, 국산차와 기호식품을 한 품목으로 묶어 총 13개 소비품목별 구매장소를 명목척도로 조사하였다. 구매선택기준은 생수는 음료 및 주류와 분리하였고, 라면과 편의식품을 한 품목으로 묶어 총 14개 소비품목별 구매기준을 명목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외 시장정보원, 지불방법, 할인권 및 쿠폰 활용도 3문항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의 모든 항목은 응답자가 인지하는 IMF이전과의 비교 결과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 program을 이용하여 Cronbach의 알파계수,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연령은 40.1세이며, 교육수준은 12.7년, 월평균소득은 202.9만원이었고 IMF이후 월평균소득 변화는 과반수 이상이 소득감소(65.8%)이었으며, 변화없음도 30.7%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74.4%)이 자녀가 있는 핵가족이고, 41.8%가 취업주부이었으며, 단순고용직(단순노무직+고용인+농수산업)은 18.3%였다. 또한 IMF관리체제 이후 가계 특성의 변화를 보면, 주거형태는 50%가 변

화가 없었지만 오히려 34.7%가 주거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증가한 생활비 비복으로는 30%가 변화없다라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554(100%)

항 목	구 分	F(%)
연령(세)	29세 이하	71(12.8)
	30~39	176(31.8)
	40~49	241(43.6)
	50세 이상	65(11.8)
	평 균	40.1
교육수준 (년)	중졸	99(17.9)
	고졸	258(46.7)
	대졸이상(전문대포함)	195(35.3)
	평 균	12.7
월평균 소득(만원)	~150	226(42.0)
	151~200	139(25.8)
	201~299	78(14.5)
	300~	95(17.7)
	평 균	202.9
주거형태 변화	규모/형태 확대	191(34.7)
	규모/형태 축소	59(10.7)
	변화 무	301(54.6)
가족형태	부부+자녀	412(74.4)
	부부+시부모+자녀	64(11.6)
	부부	57(10.3)
	기타	21(3.8)
주부직업	단순노무직	62(11.2)
	고용인/판매기술직	38(6.9)
	자영상인/제조업자	44(7.9)
	사무직	43(7.8)
	전문·기술직	37(6.7)
	경영·관리직	5(0.9)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0.2)
	전업주부	324(58.5)
증가한 생활비 비 목	식생활비(주식+부식)	147(27.6)
	외식비	9(1.7)
	주거비	28(5.3)
	피복비	8(1.5)
	교통비	51(9.6)
	교육비	87(16.3)
	문화생활비(여가비, 교체비...)	16(2.9)
	경조사비	22(3.9)
	변화 무	165(31.0)

*무응답으로 인하여 사례수에 변동이 있음. 기타는 분석시 missing처리하였음

응답하였지만, 식생활비(주식+부식)와 교육비는 오히려 각 27.6%, 16.7%로 증가하였고, 외식비는 34.3%, 문화생활비는 20.5%로 감소(식생활비 33/61%, 외식비 186/34.3%, 주거비 9/1.7%, 퍼복비 67/12.4%, 교통비 7/1.3% 교육비 47/8.7%, 문화생활비 111/20.5%, 경조사비 25/4.6%, 변화없음 57/10.5%) 되었다.

2.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의 생활양식

1) IMF 관리 체제 이후 가족의 사회·경제·가정 생활양식

가족의 일반적 생활양식, 즉 사회·경제·가정 생활양식의 유형화를 위해 총 20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였는데, 요인분석에 사용된 요인모형(factor model)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며, 요인회전(factor rotation)은 직교회전법(Varimax)을 한 후 7개의 요인(eigen value 1.0이상)을 추출한 다

음〈표 2〉와 같이 명명하다. 즉 요인 1은 투명·공정형, 요인 2는 합리적 경제의식형, 요인 3은 우리 공동의식형, 요인 4는 따뜻함 추구형, 요인 5는 긍정적 인생관 추구형, 요인 6은 합리적 구매의식형, 요인 7은 복고주의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추출된 7개요인의 합은 6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각 유형화된 요인별 항목은 〈표 2〉와 같이, 요인 1(투명·공정형)은 편법이용의식 탈피, 건전한 소비운동, 거품의식 제거, 성숙된 소비자의식, 무리한 욕심배제 그리고 맹목적 국산품애용 배제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항목 가운데 편법이용의식 탈피, 건전한 소비운동, 거품의식 제거 그리고 성숙된 소비자의식의 요인 부하량은 .6이상으로 나타나, 이러한 4개 항목이 투명·공정형 생활양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무리한 욕심배제와 맹목적 국산애용 배제의 요인 부하량은 약 .5의 수준으로 나타나 투명·공정형 생활양식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표 2〉 사회·경제·가정생활양식 요인 행렬표

요인	투명· 공정형	합리적 경 제 의식 형	우 리 공 동 의식 형	따뜻함 추구형	긍정적 인생관 추구형	합리적 구 매 의식 형	보 수 주 의 형	h^2	M
사회·경제·가정 생활양식 (IMF이전에 비해 현재 우리가족은...)									
촌지, 급행료등 편법이용의식 탈피	.732	-.030	.176	.072	.066	.204	-.080	.625	4.419
맹목적 외제상표선호나 국산품애용보다 건전한 소비운동필요	.723	.229	-.044	-.047	.093	-.143	.059	.612	4.168
가계의 과시소비/투자, 의식/문화수준면에서의 거품 제거	.627	.141	.040	.176	.054	.087	.064	.460	3.971
소비자권리·책임 및 환경과 관련된 성숙된소비자의식필요	.608	.139	.184	.217	.075	.179	.027	.508	4.163
빚을 내어서까지 투자하겠다는 무리한 욕심배제	.544	-.017	.086	-.014	-.123	.297	-.278	.484	4.238
한국제품도 가격, 품질수준이 떨어지면 철저한 사용배격	.462	.345	.134	.166	-.063	-.281	.228	.513	3.832
실속있는 생활(경조사비, 더치페이문화)	.199	.744	.149	.017	-.067	.097	.060	.623	4.409
내실위주의 삶의 태도	.118	.672	.152	.106	.252	.243	-.043	.624	3.991
장·단기계획을 세워 현재와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	.091	.618	.101	.102	.199	.315	.061	.553	3.990
가족중심적 가치관	-.088	.114	.799	-.132	.144	.047	-.062	.696	3.650
생활의 근원지로서 가정부활, 가장의 지위향상	.197	.196	.667	.144	.031	.150	-.027	.567	3.987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굳건히 함	.251	.078	.591	.295	.090	.061	.120	.531	4.051
생계가여려운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123	-.006	.063	.827	.126	.086	-.027	.728	3.556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의 자세	.131	.163	.068	.793	.055	-.015	.045	.683	3.753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에 적극적인 대처	.017	.079	.076	.082	.856	-.022	.029	.753	3.013
비용이 들지않는 건전한 취미 빌글로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103	.121	.139	.103	.789	.110	.117	.703	3.381
실속지향적 합리적구매와 소비생활	.150	.227	.075	-.025	.009	.663	.127	.536	3.821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제품구입시 사전정보탐색강화	.093	.241	.136	.116	.073	.654	.077	.537	3.742
복고풍의 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181	.126	-.086	.008	.028	.008	.774	.656	2.419
유행안타는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268	-.079	.121	.017	.151	.288	.692	.678	3.440
고유치(eigen value)	.368	1.84	1.66	1.61	1.58	1.44	1.29		
전체변량(%)	13.38	9.18	8.31	8.03	7.90	7.17	6.44		
공통변량(%)	13.38	22.55	30.86	38.89	46.79	53.96	60.41		
Cronbach's α	.712	-.683	.602	.644	.664	.601	.599		

인자로 나타났다. 요인 2(합리적 경제의식형)는 실속 있는 생활, 내실위주의 삶의 태도, 현재와 미래의 적극적 설계의 3개 항목, 요인 3(우리 공동의식형)은 가족중심적 가치관, 가장의 지위 향상,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의 3개 항목, 요인 4(따뜻함 추구형)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봉사하는 삶의 자세의 2개 항목, 요인 5(긍정적 인생관 추구형)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건전한 취미발굴의 2개 항목, 요인 6(합리적 구매의식형)은 합리적 구매와 소비, 제품구입시 정보에 대한 탐색강화의 2개 항목, 요인 7(보수주의형)은 복고풍상품과 비유행성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6개 요인에 미치는 각 인자의 부하량의 크기는 .6 이상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7개의 요인 가운데 투명·공정형 생활양식의 설명력이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중요하게 인지되는 생활양식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합리적 경제의식형, 우리 공동의식형, 따뜻함 추구형, 긍정적 인생관 추구형, 합리적 구매의식형, 복고주의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는 .60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치도가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근본문제인, 투명공정성형이 높으며, IMF로 합리적 경제의식형도 높지만, 우리공동의식형, 따뜻함 추구형은 새로운 일반적 생활양식을 시사한다.

특히 IMF이후 가정경제 문제로 가정이 붕괴되거나 가족이 분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가족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보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가족중심적 가치관이나 가족간의 유대증진 등과 같은 우리공동의식형 생활양식이 나타났다.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가치로서 새로이 제조명된 따뜻함 추구형 생활양식은 어려운 시기의 반사적 행태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신동의 연구²⁵⁾에서 나타난 애국심이나 한탕주의는 본 연구조사의 결과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일시적 현상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출된 7개의 생활양식 요인은 오세조²⁾의 IMF시대의 고객쇼핑패턴에서 나타난 목적구매지향적, 점포충성도 중시, 상품선택의 신중도 증가, 가격위주의 구매, 가치지향적 구매, 비소유지향구매, 공동화의 의식구매, 현실도피형 소비패턴, 근거리쇼핑·주말 1회 쇼핑 경향,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선호의 10가지의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동²⁵⁾의 IMF사태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연구에서 추출된 10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우리' 개념, 현실도피, 경제

우선마인드, 복고주의, 계층간의 갈등증대, 한탕주의, 글로벌 스텐더드에의 이중적 대응, 투명·공정성의 대두, 따뜻함의 추구, 애국심 증대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활양식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각 문항별 평균점수를 구한 결과 촌지, 급행료 등 편법이용의식을 탈피해야 한다와 경조사비의 현실화나 더치페이문화 정착등 실속있는 생활이 되어야한다는 항목이 5점척도의 각 4.42와 4.41로 매우 높은 의식으로 나타난 반면, IMF이후 새로이 등장한 복고풍의 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에 대한 의식은 2.42로 가장 낮았다.

2) IMF 관리 체제 이후 가족의 식생활 양식

가족의 식생활 양식의 유형화를 위해 총 21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였으며, 요인분석에 사용된 요인모형(factor model)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며, 요인회전(factor rotation)은 직교회전법(Varimax)을 한 후 9개의 요인을 추출한 다음 <표 3>과 같이 명명하였다. 즉 요인 1은 고급·감성화 추구형, 요인 2는 경제성 추구형, 요인 3은 건강식품선호형, 요인 4는 국제화 추구형, 요인 5는 기능성식품선호형, 요인 6은 전통음식회귀 추구형, 요인 7은 편의성 추구형, 요인 8은 환경지향형, 요인 9는 생산소비추세 추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추출된 9개 요인의 설명력은 69.3%였다.

각 유형화된 요인별 항목은 <표 3>과 같이, 요인 1(고급·감성화)은 양보다 질의추구, 음식의 종류, 맛, 미각 등에서 고급성 추구, 음식점 선택에서나 가정내 식사에서도 분위기추구의 4개의 항목, 요인 2(경제성)는 실속있는 음식점추구, 실속구매, 생수보다 옥수수차·약수이용의 3개 항목, 요인 3(건강식품선호)은 천연음료추구, 건강식품추구의 2개 항목, 요인 4(국제화)는 패스트푸드중심의 외국브랜드음식추구, 국제화 강조의 이국적 요리추구의 2개 항목, 요인 5(기능성식품선호)는 기능성 음료·식품추구의 2개 항목, 요인 6(전통음식회귀)은 전통지향성 식품 추구, 순수한 우리 농산물추구의 2개 항목, 요인 7(편의성 추구)은 편의성서비스와 식품추구의 2개 항목, 요인 8(환경지향형)은 음식잔여물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참여의 2개 항목, 요인 9(생산소비추세)는 요리하는 즐거움과 가족에 대한 절높은 봉사추구, 직접채소재배를 하거나 식품가공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추출된 9개 요인에 미치는 각 인자의 부하량의 크기가 .6이상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9개의 요인 가운데 고급·감성화 추구형 식

〈표 3〉 식생활 양식 요인 행렬표

요인 (IMF이전에 비해 나의 기족은...)	고급 감성화	경제성 식품 선호	건강 식품 선호	국제화	기능성 식품 선호	전통 음식 회귀	편의성 추구	환경 지향성	생산 소비 주체	H ²	M
양보다는 질을 더 추구	.748	.080	.045	-.109	.078	.192	-.037	-.269	.100	.700	3209
음식의 종류, 맛, 미각, 분위기에서 고급성추구	.738	-.054	.087	.141	-.065	-.041	.151	.046	.085	.612	2605
음식점선택시 무엇보다도 분위기를 더 추구	.705	-.042	.095	.197	.060	-.033	.233	-.044	-.023	.609	2552
가정내식사도 음식만이 아니라 분위기조성추구	.675	-.011	.096	.043	.164	-.127	.078	.249	-.007	.710	2937
실속있는 음식점(set메뉴, IMF형메뉴등) 더 추구	.069	.715	-.296	.077	.305	.127	-.003	-.034	-.049	.721	3581
가격, 성분, 양 등을 고려한 실속구매	.006	.710	.113	-.148	-.114	.046	-.094	.306	-.013	.656	4209
생수보다 옥수수차나 약수를 이용하여 경비절감	-.096	.642	.342	.004	-.191	.093	.033	.001	.139	.604	3888
합성음료보다 천연음료를 더 추구	.150	.063	.750	-.036	.132	.085	-.049	.028	.131	.634	3541
건강식품(무공해, 무가당, 자연식품)을 더 추구	.166	.063	.739	-.082	.179	.189	-.075	.079	-.072	.668	3459
페스트푸드점 중심의 외국브랜드음식 더추구	.031	.093	-.059	.842	.073	-.021	.193	-.067	-.085	.777	2002
국제화를 강조한 이국적인 요리를 더 추구	.218	-.193	-.057	.782	.096	-.076	.100	-.034	.109	.738	1717
기능성음료를 더 추구	.055	.063	.051	.114	.804	-.049	.091	-.028	.078	.686	2665
기능성식품을 더 추구	.041	-.136	.257	.038	.754	.114	.111	.002	.070	.686	2750
전통지향성 식품(전통차, 떡, 것갈류등)을 더 추구	-.009	.032	.110	-.040	.047	.818	.099	.183	.154	.753	3334
순수한 우리나라 농산물을 더 이용	-.051	.296	.349	-.091	-.018	.644	-.075	.144	-.021	.662	4042
편의성 서비스를 더 추구	.243	.003	-.033	.062	.171	-.003	.845	.026	.038	.809	2291
편의성 식품을 더 추구	.159	-.070	-.117	.361	.050	.059	.715	-.129	-.039	.710	2043
음식잔여물의 재활용, 사료화에 더참여	.072	.054	-.036	-.025	.023	.291	-.097	.814	.120	.781	348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참여	-.098	.395	.239	-.142	-.048	.073	.027	.635	.112	.668	3948
요리하는 즐거움과 가족에 대한 질높은 봉사 추구	.110	.036	.184	-.095	.042	-.038	.050	.089	.847	.788	3307
직접 채소를 재배하거나 식품을 가공	.018	.029	-.157	.161	.157	.305	-.067	.113	.654	.656	2630
고유치(eigen value)	2.29	1.77	1.69	1.64	1.52	1.46	1.43	1.40	1.30		
전체변량(%)	10.90	8.43	8.07	7.83	7.23	6.95	6.80	6.68	6.15		
공통변량(%)	10.90	19.32	27.30	35.21	42.44	49.39	56.19	62.88	69.03		
Cronbach's α	.722	.601	-.643	.641	.652	.612	-.664	.603	.599		

생활 양식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10.9%), IMF 관리체제 이후에도 여전히 식생활에서의 고급화 및 감성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성, 건강식품선호, 국제화, 기능성식품선호, 전통음식회귀, 편의성 추구, 환경지향성, 생산소비주체 등의 순으로 그 요인들의 각 설명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화가 진행되던 80년대의 연구에 의해 분류한 식생활양식(편의성지향, 건강지향, 전통지향, 고급화, 국제화, 기능성증시, 외식문화, 환경지향, 경제성증시경향)과 비교해 볼 때, 기대한 결과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식생활이 의생활이나 주생활등 다른 소비영역에 비해 소비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식생활양식의 특성을 반영¹⁶⁾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식생활 양식증 전통음식회귀양식을 나타낸 항목이나 환경지향성 생활양식으로 유형화된 항목들도 추출되어 국산 PB제

품의 개발과 환경지향적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각 요인별 신뢰도는 .60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다소 높았으며, 각 문항별 평균점수를 구한 결과, IMF관리체제이후 식생활에서 가격, 성분, 양 등을 고려한 실속구매를 하려한다는 의식(4.21)과 순수한 우리농산물을 더 이용하려한다는 의식(4.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화를 강조한 이국적인 음식을 더 선호한다가 1.72로 상당히 낮았다.

3.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

IMF관리체제이후의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는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의 변화와 시장환경조성을 위한 구매행태의 변화로 조사하였다.

1)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 변화

식생활 소비행태의 변화는 계획단계, 구매단계, 사용·처분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주부소비자가 지각하는 식생활 소비행태를 IMF이전과 비교한 그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단계의 전반적 합리성의 평균점수 정도(표 4참조)는 3.01점/5점으로, 합리성이 증가된 집단은 단지 13.5%로 나타나,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식생활의 합리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3.37/5점)은 계획(2.61) 및 구매단계(3.06)에 비해 다소 높은 합리성을 보였다.

각 단계별 합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계획단계의 합리성 변화

식생활 계획단계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식단작성여부, 식생활 개선 노력도, 그리고 식단작성시 고려요소로 식생활 계획단계의 합리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계획단계의 합리성 총평균은 2.61/5로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표 4>와 같이, 가족의 식사를 위해 미리 메뉴를 계획하는 정도나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반찬의 가지수나 양을 과도하게 많이 준비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정도)정도가 IMF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식사 메뉴를 계획할 때 IMF 이전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가격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의 기호가 31.2%로 나타나 IMF에 의한 가계의 소득변화로 식생활 관련 상품의 가격에 가장 민감하여 반응하고 있지만 가족의 기호도 여전히 고려함으로써 계획성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IMF로 인한 소득감소로 계획적으로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합리성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기호를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IMF이전에 조사된 연구결과에서는²⁶⁾ 과다 상차림 습관과 비계획적 식품구매가 식생활 쓰레기의 주된 배출 요인으로 나타나, 식습관의 개선이나 식사메뉴의 계획등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하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MF이후 각 가정에서는 계획성 있는 메뉴 작성이나 식습관 개선으로 식생활 소비정도를 감소하려는 것 보다는 저렴한 식품종류의 구매를 계획함으로써 소득감소에 따른 식생활 소비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IMF이후의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²⁷⁾에서도 주부들이 시장을 덜가거나 보관중인 식재료를 최대한 사용하는 등 계획단계 보다는 사용·처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반응하여 계획단계의 합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MF이후 가격 민감형 단기적 안목에서의 식생활 계획태도에서 좀더 포괄적인 장기적 안목에서의 식생활 계획태도를 지니도록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2)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구매단계의 합리성

IMF 관리체제 이후의 계획구매 정도, 시장정보 탐색정도, 시장정보 활용도를 조사하여 식생활 구매단계의 합리성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으로 산출한 전반적 구매단계의 합리성의 총 평균은 3.06/5로 IMF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식품의 품목과 양을 미리 메모하거나 메뉴에 맞춰 구매하는 계획 구매하는 정도가 IMF 이전에 비해 증가한 비율은 높지 않았고(2.91/5점), IMF이후 13.9%가 증가되어 전체 67.8%가 계획구매를 한다고 응답한 IMF 관리체제 직후 조사된 소비자보호원²⁸⁾의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낮았다. 또한, 구매할 식품에 대한 시장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정도는 증가한 집단이 감소

<표 4>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계획 단계의 합리성

		전반적 계획 단계의 합리성 정도		F(%)	식단작성시 고려요소
		식단작성여부	식습관 개선 노력도		
매우 줄었다	55(10.0)	42(7.6)	68(12.3)	영 양	85(15.3)
조금 줄었다	190(34.3)	168(30.3)	212(38.3)	가 격	233(42.1)
그저 그렇다	234(42.2)	254(45.8)	214(38.6)	계절식품	60(10.8)
조금 늘었다	68(12.2)	82(14.8)	53(9.6)	가족의 기호	173(31.2)
매우 늘었다	7(1.3)	8(1.4)	7(1.3)	기 타	3(0.5)
평 균	2.61	2.72	2.49	계	554(100.0)

매우 줄었다(1점) ←→ 매우 늘었다(5점)

〈표 5〉 IMF 관리 체제 후 식생활 구매의 합리성

F(%)

		전 단계 합리성 정도		
		계획구매정도	시장정보보유도	시장정보활용도
매우 줄었다	42(7.5)	40(7.2)	19(3.4)	66(11.9)
조금 줄었다	143(25.9)	154(27.8)	68(12.3)	208(37.5)
그저 그렇다	186(33.6)	198(35.7)	201(36.3)	159(28.7)
조금 늘었다	159(28.6)	142(25.6)	225(40.6)	109(19.7)
매우 늘었다	24(4.4)	20(3.6)	41(7.4)	12(2.2)
평균(5점)	3.06	2.91	3.64	2.63

한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으며(48.0%) 이는 IMF이후 구매결정시간이 길어져 구매신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된 송보경기의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그러나, 수집한 시장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는 2.63/5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나 실제적 실천도가 낮아 전반적으로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구매단계에서의 합리성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

IMF 관리체제 이후 처분할 식품재료의 감소노력 정도, 식품재료의 잔여물 활용정도, 식사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정도, 그리고 쓰레기 감소 참여도를 조사하여 식생활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으로 산출한 총평균은 3.37/5점으로,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사용·처분 단계의 합리성은 다른 단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결과를 보였고 구체적인 항목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식품구매 전에 구입할 식품을 확인한 후 구매하거나 구매식품을 보다 유용하게 보관함으로써, 식품을 버리거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IMF이전에 비해 3.72/5점으로 나타나 다소 높았으며 식품의 보유 목록을 자세히 메모하여 구매하고 보다 유용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혀버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4.1%나 되었다.

또한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채소 및 과일자투리나 생선뼈 등 식품재료의 잔여물을 활용하는 정도는 3.09/5점으로 과반수(50.2%)가 조리에 재활용하는 경향이었으나, 버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40.2%나 되었다. 또한 식사후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도록 다시 먹거나 되살리기 음식으로 재활용하는 정도는 3.32/5점으로 식품재료의 자투리 재활용보다는 상당히 높았지만, 버리는 비율도 25.2%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는 IMF이전에 조사된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조사결과²⁶⁾와 비교해 보면, 조리과정에서의 잔여물

(82.3%)과 조리식사후 남은 음식(53.9%)은 최종 폐기처분하는 경향이 높은 것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조리 전처리 단계에서의 식재료 잔여물의 재활용의식은 상당히 미비함을 알수 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참여도는 3.35/5점으로 소비자보호원의 98/2월 조사결과⁵⁾(77.8%가 실천중), 98년 6월조사결과⁷⁾(87.9%가 적극 참여)와 마찬가지로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집단은 과반수(58.6%)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조리 전처리의 식재료 잔여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품(채소 및 생선 등)의 이용정도는 감소하였다가 50.8%로 나타났으며 IMF 이후 전처리 식품을 이용하거나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3.3%(18명)이었다. 이러한 IMF이후 전처리 식품을 이용하지 않거나 감소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8%(337/554명)가 전처리 식품을 이용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37명 중 과반수 이상이 고가격(62.3%)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신선도, 위생, 첨가물등 안전성(25.8%), 재활용불가능 포장용기(10.7%), 기타(1.2%)로 응답하여 전처리 식품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며 음식물쓰레기 줄어들지만 고가격이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처리 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내용물의 안전성에 대한 비신뢰성이 37.3%, 고가격이 27.1%로 나타난 IMF이전에서 조사된 이등²⁶⁾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리 전처리의 식재료 잔여물을 감소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 방안이 모색되고 실천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2)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구매 행태

식생활 구매 행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량 변화정도와 구매장소 그리고 구매선택기준, 시장 정보원, 지불방법, 할인권/쿠폰의 이

〈표 6〉 IMF 관리 체제 후 식생활 사용·처분 단계

처분할 제품재료의 감소 노력도	식품구매나 보관 f(%)					
	전혀 노력하지 않음	구매전 가끔 확인, 보관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음	구매 전 대체로 확인, 보관에도 대체로 신경을 씀	구매전 거의 확인, 보관에도 대체로 신경을 씀	식품보유목록을 자세히 메모하여 구매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	평균점수
	15(72)	48(87)	91(16.4)	322(58.1)	78(14.1)	
식품자료의 잔여물 활용도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여물 f(%)					
	버린다	일단 보관하나 버린다	조리에 재활용하지 않지만 거름으로 활용	대체로 조리에 재활용	적극적으로 조리에 재활용	평균점수
	92(16.6)	130(23.6)	54(9.7)	191(34.5)	87(15.7)	3.09
식사후 남은 음식의 재활용	식사후 남은 음식 f(%)					
	버린다	일단 보관하나 버린다	새로운 음식으로 재활용하지 않지만 대체로 다시 먹거나 새로운 음식으로 재활용	대체로 다시 먹거나 새로운 음식으로 재활용	반드시 다시 먹거나 새로운 음식으로 재활용	평균점수
	30(5.4)	110(19.8)	147(26.5)	188(33.9)	79(14.3)	3.32
음식물 쓰레기 감소 참여도	음식물 쓰레기 f(%)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단 반쓰레기와 함께 버림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지만 물기제거후 일단 반쓰레기와 함께 버림	별도로 분리하여 버리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	별도로 분리하여 버리되, 물기를 최대한 제거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	평균점수
	41(7.2)	86(15.5)	102(18.4)	290(52.3)	35(6.3)	3.35
총 평균						3.37/5

용정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량의 변화 정도

먼저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량의 변화 정도는 〈표 7〉과 같다.

소비품별 구매량은 전 품목에서 감소경향(평균 2.26/5점)으로, 곡류(2.91/5점), 채소·해초류(2.74/5점) 등 기본 식재료품목의 감소폭이 적은 반면 외식(1.81/5점), 수입식품(1.88/5점), 음료(1.93/5점), 손님접대, 육가공품과 편의식품(1.96/5점) 등 선택적 소비지출품목[강이주]¹⁷⁾의 구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변화양상과는 역의 변화로 선택적 소비품목(수입식품,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건강보조식품, 유기농산물·무공해식품)을 중심으로 98년 6월 조사된 결과¹⁷⁾와 잘 일치하였다.

이는 가족의 식사준비시 필요한 최소한의 구매로

식생활 경비를 절감하려는 주부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2)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장소의 변화 정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장소는 〈표 8〉과 같다. 소비품별 구매장소는 전 품목에서 동네 슈퍼/가게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향(39.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경향(23.4%)이 높았지만, 제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식품, 기호식품, 수입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동네 슈퍼/가게를 이용하는 비율은 30%~6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빵 및 과자류와 음료/주류/생수는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어패류(28.7%)와 채소·해초류(24.8%)는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도 거의 모든 품목에서 14~35%정도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유지류, 가공식품, 기호식품은 약

〈표 7〉 IMF 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목별 구매량의 변화정도

	매우 줄었다	조금 줄었다	변화없다	조금 늘었다	매우 늘었다	평균
	F(%)	F(%)	F(%)	F(%)	F(%)	
곡류	15(2.9)	70(13.6)	382(74.0)	44(8.5)	5(1.0)	2.91
육류	69(12.5)	263(47.7)	181(32.8)	36(6.5)	2(0.4)	2.34
유제품	79(14.5)	186(34.3)	214(39.4)	55(10.1)	9(1.7)	2.50
어개류	76(14.0)	215(39.6)	210(38.7)	39(7.2)	3(0.6)	2.41
채소·해초류	42(7.7)	154(28.1)	271(49.5)	66(12.0)	15(2.7)	2.74
과일	141(25.7)	215(39.2)	154(28.1)	36(6.6)	2(0.4)	2.17
유지류	93(17.2)	157(28.3)	275(50.7)	16(3.0)	1(0.2)	2.40
빵 및 과자류	159(30.0)	220(41.5)	118(22.3)	31(5.8)	2(0.4)	2.05
음료	180(36.4)	188(38.0)	112(22.6)	13(2.6)	2(0.4)	1.93
주류	111(31.0)	128(35.8)	100(27.9)	16(4.5)	3(0.8)	2.08
생수	49(20.3)	52(21.6)	117(48.5)	17(7.1)	6(2.5)	2.50
라면류	101(19.2)	162(30.9)	184(35.0)	65(12.4)	13(2.5)	2.48
육가공품	177(37.2)	154(32.4)	133(27.9)	12(2.5)		1.96
편의식품	126(40.3)	88(28.1)	87(27.8)	9(2.9)	3(1.0)	1.96
건강식품	74(19.3)	118(30.8)	139(36.3)	46(12.0)	6(1.6)	2.46
국산차	81(18.9)	87(20.3)	193(45.1)	55(12.9)	12(2.8)	2.60
기호식품	111(24.4)	127(28.0)	196(43.2)	19(4.2)	1(0.2)	2.28
수입식품	119(45.9)	68(26.3)	64(24.7)	5(1.9)	2(0.8)	1.88
가족외식	209(42.1)	194(39.0)	74(14.9)	17(3.4)	3(0.6)	1.81
가정내·외에서의 손님접대	166(35.8)	168(36.2)	115(24.8)	12(2.6)	3(0.6)	1.96
가사편의품	150(39.1)	101(26.3)	125(32.6)	6(1.6)	2(0.5)	1.98
계	111(25.4)	148(31.7)	164(35.6)	29(6.2)	5(1.0)	2.26

〈표 8〉 IMF 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목별 구매장소

	동네 제례시장	동네 슈퍼/가게	도매시장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식품매장	장소에 상관 없이 세일장소	기타
	F(%)	F(%)	F(%)	F(%)	F(%)	F(%)	F(%)
곡류	50(9.5)	228(43.4)	23(4.4)	128(24.4)	28(5.3)	25(4.8)	43(8.2)
육류	63(11.4)	246(44.5)	31(5.6)	108(19.5)	73(13.2)	27(4.9)	5(0.9)
유제품	19(3.5)	262(48.3)	12(2.2)	139(25.6)	59(10.9)	33(6.1)	19(3.5)
어개류	156(28.7)	166(30.0)	53(9.8)	76(14.0)	73(13.4)	16(2.9)	3(0.6)
채소·해초류	136(24.8)	218(39.4)	41(7.5)	84(15.3)	48(8.8)	19(3.5)	2(0.4)
과일	107(19.6)	223(40.8)	53(9.7)	86(15.7)	38(6.9)	32(5.9)	8(1.5)
유지류	21(3.9)	233(43.0)	16(3.0)	182(33.6)	48(8.9)	39(7.2)	3(0.6)
빵 및 과자류	20(3.8)	310(58.2)	14(2.6)	98(18.4)	44(8.3)	29(5.4)	18(3.4)
음료, 주류, 생수	8(1.5)	274(52.5)	12(2.3)	150(28.7)	33(6.3)	24(4.6)	21(4.0)
가공식품	11(2.0)	234(43.6)	11(2.0)	188(35.0)	36(6.7)	46(8.6)	11(2.0)
건강식품	29(7.6)	84(21.9)	28(7.3)	94(24.5)	65(17.0)	27(7.0)	56(14.6)
기호식품	11(2.4)	133(29.0)	19(4.1)	134(29.2)	73(15.9)	45(9.8)	44(9.6)
수입식품	5(1.9)	57(21.8)	8(3.1)	54(20.6)	62(23.7)	27(10.3)	49(18.7)
계	45(8.6)	191(39.7)	23(4.5)	109(23.4)	49(10.4)	28(5.8)	20(4.9)

3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백화점 식품매장을 가장 이용하는 품목으로는 수입식품(23.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기호식품, 육류, 어개류 품목도 다소 이용하는 경향이었고, 수입식품은 기타가 18.7%로 다른 품목에 비해 약간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준에 조사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채소류와 육류/동네 재래시장에서 주로, 가공식품은 슈퍼에서 구매한다고, 98년 5-6월에 서울/경기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행태 변화⁷⁾에 의하면, 78.6%가 백화점에 가는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소비재에 대한 조사 결과로, IMF 이후 전반적인 백화점의 이용도는 낮아졌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일반화할수 없음을 알수 있었다.

(3) IMF 관리 체제 이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선택기준의 변화 정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선택기준의 변화 정도는 <표 9>과 같다.

구매당시의 소비품별 구매선택의 기준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안전성과 신선도를 고려하는 경향이었으나 계획단계에서 메뉴작성시에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메뉴작성시에는싼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나, 실제 구매시 그 재료를 선택할 때에는 안전성이나 신선도를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곡류는 오히려 신선도/유효기간과 제조회사/상표명을, 음료/주류는 신선도/유효기간과 포장을, 기호식품은 신선도/유효기간을, 수입상품은 제조회사/상표명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빵 및 과자류는 34.4%가 영양을 가장 고려하였으며 육류, 과일, 편의식품, 기호식품도 영양을 고려하는 경향이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리고 원산지/생산국을 고려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가격은 생수에서, 위생은 건강식품과 곡류에서, 그리고 포장은 편의식품, 음류/주류, 기호식품, 생수 등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서울거주주부를 대상으로 조사¹⁰⁾된 향후 전체소비용품의 선택기준은 가격이 71.4%로 가장 높았고, 현재의 식료품의 선택기준은 품질, 신선도가 1순위로 가격은 2순위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97년 12월에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서울 신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IMF시대 소비패턴변화 및 경제전망에서 77.7%가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가격이 싼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조사된 결과는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된 메뉴작성시의 고려요인에서 가격이 나타난 것처럼 식재료의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격이 싼 제품을 계획하나 단가면에서 유사한 혹은 같은 종류의 식재료중에서는 신선도나 품질을 기준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IMF 후 식생활 관련 소비품별 구매선택기준

	맛	영 양	위 생	가격 /유효기간	신선도 (첨가물...)	안전성 /생산국	원산지	제조회사	포 장	간편성
	F(%)	F(%)	F(%)	F(%)	F(%)	F(%)	F(%)	F(%)	F(%)	F(%)
곡 류	6(1.2)	89(17.3)	102(19.8)	7(1.4)	104(20.2)	26(5.0)	14(2.7)	152(29.5)	14(2.7)	1(0.2)
육 류	1(0.2)	113(20.5)	26(4.7)	64(11.6)	37(6.7)	231(42.0)	14(2.5)	61(11.1)	3(0.5)	·
유 제 품	3(0.6)	18(3.4)	40(7.5)	31(5.8)	48(9.0)	340(63.6)	21(3.9)	12(2.2)	21(3.9)	1(0.2)
어 개 류	·	18(3.3)	21(3.9)	49(9.1)	19(3.5)	413(76.5)	6(1.1)	13(2.4)	1(0.2)	·
채소·해초류	·	18(3.3)	15(2.8)	23(4.2)	54(9.9)	403(73.9)	15(2.8)	17(3.1)	·	·
과 일	1(0.2)	142(25.9)	20(3.6)	15(2.7)	88(16.1)	250(45.6)	8(1.5)	24(4.4)	·	·
유 지 류	4(0.8)	18(3.5)	25(4.8)	15(2.9)	114(21.9)	232(44.5)	36(6.9)	11(2.1)	65(12.5)	1(0.2)
빵 및 과자류	5(1.0)	180(34.4)	37(7.1)	13(2.5)	73(13.9)	147(28.1)	22(4.2)	6(1.1)	40(7.6)	1(0.2)
생 수	8(3.9)	3(1.4)	2(1.0)	55(26.6)	16(7.7)	65(31.4)	22(10.6)	6(2.9)	30(14.5)	·
음료, 주류	9(1.9)	92(19.5)	8(1.7)	17(3.6)	132(28.0)	73(15.5)	22(4.7)	12(2.5)	107(22.7)	·
편의식품	23(4.5)	104(20.4)	11(2.2)	15(2.9)	112(22.0)	85(16.7)	40(7.8)	3(0.6)	115(22.5)	2(0.4)
육가공품	9(2.0)	39(8.5)	11(2.4)	24(5.2)	55(12.0)	209(45.6)	43(9.4)	8(1.7)	59(12.9)	1(0.2)
건강식품	·	6(1.8)	92(28.0)	19(5.8)	31(9.4)	47(14.3)	61(18.5)	29(8.8)	44(13.4)	·
기호식품	8(2.0)	94(23.0)	16(3.9)	12(2.9)	98(24.0)	54(13.2)	27(6.6)	22(5.4)	74(18.1)	3(0.7)
수입식품	2(0.9)	22(10.4)	2(0.9)	9(4.3)	38(18.0)	41(19.4)	19(9.0)	64(30.3)	13(6.2)	1(0.5)
계	5(1.3)	64(13.1)	29(6.3)	25(6.1)	68(14.8)	178(35.7)	25(6.1)	29(7.2)	39(9.2)	1(0.2)

(4)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관련품의 구매시장
정보원, 지불방법, 할인권과/쿠폰이용정도

IMF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장정보원으로는 <표 10>과 같이 TV/잡지/신문의 광고(20.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경험(19.3%), TV/잡지/신문의 기사, 카달로그나 광고지를 이용하는 경향이었다. 이기준¹⁶⁾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품의 시장정보원은 주로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만은 할수 없는 상업적 원천의 광고(66.6%)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IMF 이전에 비해 기사등의 종합적 정보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원을 고르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정보의 탐색정도가 높은 결과와 함께 비추어 유용한 정보원의 제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식품구매시 IMF 이후 더 많이 활용하는 지불방법과 할인권/쿠폰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은

<표 10> IMF 후 식생활 관련품목의 시장정보원, 지불방법, 할인권/쿠폰의 이용정도

시장정보원	
자신의 경험	107(19.3)
TV/잡지/신문 광고	111(20.0)
TV/잡지/신문 기사	94(17.0)
이웃 친구의 말	66(11.9)
가족 친지의 말	30(5.4)
판매원의 말	2(0.4)
매장에 진열된 제품	52(9.4)
카달로그나 광고지	89(16.1)
기타	3(0.5)
계	554(100.0)

지불방법	
현금 일시불	400(72.5)
현금 분할지불	26(4.7)
신용카드 일시불	56(10.1)
신용카드 분할지불	60(10.9)
기타	10(1.8)
계	554(100.0)

할인권/쿠폰이용도	
전혀 활용하지 않음	75(13.5)
대체로 활용하지 않음	117(21.1)
구매시 소지하고 있으면 활용함	213(38.4)
눈에 띠는데로 준비했다가 자주 활용함	95(17.1)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반드시 활용함	54(9.7)
평균	2.88

네, 조사대상자의 72.5%가 현금 일시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으로 81%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⁷⁾와 거의 상통하였다. 할인권과 쿠폰이용도는 2.88/5점으로 낮았고, 할인권/쿠폰을 이용하려는 것 보다는 구매시 소지하고 있으면 활용하는 경향이 38.4%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4.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

식생활 소비행태의 합리성은 각 식생활 소비행태 단계별 합리성 즉, 계획단계의 합리성, 구매단계의 합리성,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으로 분류하였다. 계획 단계의 합리성은 IMF 이후 식단작성여부와 식습관개선 노력도의 합이며 그 신뢰도 $\alpha=.669$ 이며, 구매단계의 합리성은 식단에 의거한 계획구매도, 정보탐색도, 정보 활용도의 합이며 그 신뢰도 $\alpha=.689$ 이다. 또한 사용처 분단계의 합리성은 식품재료의 감소노력도, 식품재료 잔여물의 활용도, 남은 음식 재활용 정도, 음식물쓰레기 감소 참여도의 합으로서 그 신뢰도 $\alpha=.759$ 이다.

식생활 소비행태의 각 단계별 합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11 참조>), 주거형태(규모축소를 기준), 생활비 증가비목(식비를 기준), 소득변화(증가를 기준), 가족형태(부부를 기준), 주부직업(단순·고용·농업을 기준), 교육수준(중졸을 기준)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식생활 계획단계의 합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월평균소득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형태, 긍정적인 인생관 확립, 기능성 식품선택의 순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3.9%이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부부 가족형태보다 시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확대가족 형태에서, 생활 양식이 긍정적 인생관 추구형일수록, 식생활 양식이 기능성 식품 선택형일수록 IMF 이후 식생활 계획단계의 합리성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구매단계의 합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소득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0.0%이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IMF 이후 식생활 구매단계의 합리성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생활 계획단계와 구매단계가 소득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높았지만 소득이 많다고 해서 계획 및 구매단계에서의 합리성 정도가 IMF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아니며(2.61/5점, 3.06/5점), 소득과는 관계없이 어떤 집단에서나 계획 및 구매단계에서의 합리성 정도가 낮음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실천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환경지향적인 식생활 양식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력(대출), 우리공동의식형, 긍정적인 인생관 추구형, 주거형태, 경제성 추구형 식생활 양식, 국제화 추구형 식생활양식, 월평균소득, 합리적 경제의식형 생활양식, 기능성식품선호형 식생활양식의 순으로 유의하였고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3.9%이었다. 즉 식생활 양식이 환경지향형이고 경제지향형일수록 사용·처분의 합리성 정도가 높은 반면, 국제화 추구형이고 그리고 기능성식품선호형일수록 오히려 합리성 정도가 낮았다. 또한 일반적 생활양식이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구매의식형, 긍정적인 인생관 추구형 그리고 우리 공동의식형일수록 사용·처분 단계에서의 합리성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주거형태가 축소된 가계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었거나 변화 무인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보다 대졸인 경우 이 단계에서의 합리성 정도가 낮았다.

5.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품목 구매감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

식생활 소비품목 구매 증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12참조), 주거형태, 생활비 증가비목, 소득변화, 가족형태, 주부직업, 교육수준은 <표 11>과 같이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먼저 식생활 전체 소비품목 구매 증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직업(자영업)과 가족형태(핵가족)이었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42.0%로 다소 높았다. 즉 주부 직업이 자영업보다는 단순고용직인 경우, 부부만의 가족형태보다는 자녀가 있는 핵가족인 경우 구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식생활 대체서비스(가족외식과 손님접대 및 가사편의품)를 제외한 식생활 관련 소비품목의 구매 증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형태(핵가족)에서만 유의하였으며, 부부만의 가족형태보다는 자녀가 있는 핵가족인 경우 구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식생활 대체 서비스인 가족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리공동의 식지향형 생활양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합리적 구매의식형 생활양식, 가족형태(핵가족), 환경지향형 식생활 양식, 연령, 투명·공정형 생활양식 순으로 유의하였다. 즉, 우리공동의식형과 합리적 구매의식형 그리고 투명·공정형인 생활양식 일수록 가족외식 빈도가 낮

<표 11> 계획, 구매, 사용·처분 각 단계의 힐리성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 수	단 계	식생활 소비행태의 전반적 합리성 정도			
		계획단계의 합리성	구매단계의 합리성	사용·처분단계의 합리성	
		Beta	Beta	Beta	Beta
월평균 소득			.180***	.115*	-.106*
주거형태(축소)	확 대				-.134*
소득변화(증가)	변 화 무	-.222*			
가족형태(부부)	화대가족		.152*		
교육수준	고 졸				-.142*
	대 졸				-.201**
사회·경제· 가정 생활양식	합리적 경제의식형				.103*
	우리공동의식형	.118*			.175***
	긍정적 인생관 추구형	.117*	.096*		.150***
	합리적 구매의식형	.105*			.144***
식생활 양식	경제성 추구형				.131**
	국제화 추구형	-.099*			-.118**
	기능성식품선호형		.104*		-.089**
	환경지향성 추구형	.188***			.224***
Constant	3,843	3,450	4,165	3,914	
R ²	.172	.139	.100	.339	

*P<.05 **P<.01 ***P<.001 유의한 변수만 표로 작성하였음

〈표 12〉 식생활 전체 소비품목 구매증감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

변수	소비품목	식생활 전체 소비품목 구매 변화도											
		식생활 관련 소비품목(주식 + 부식)						기후 식품					
		곡류	육류	유제품	어개류	채소·해초류	과일	유자류	빵·과자류	음료·주류	생수	기공 식품	건강 식품
현	영양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월령군소득					-125*					-113*		-138*	-127*
학대													-126*
주거형태(축소)													-139*
변화무													266**
증가비목(식비)	외식+전 비목												188*
변화무													
감소													
소득변화(증가)	변화 무												
기후형태(부부)	학기족(자녀)	.332*	.298*	.122*	.182**								
주부직업	자영업	-.367*											166**
(단순고용직)	사무/ 전문/ 경영			.120*									145*
	전업주부												
고출													
대출	대출												
투명공정성													
한려 척경정책													
일반적	우리 공동의식												
생활양식	따뜻한												
	한려 척구메의식												
복고주의													
고급·감성화													
경제적 추구													
식생활 양식	건강식품선호												
	국체적 추구												
기능성식품선호													
전통음식회기													
	편의성추구												
환경지향성													
생산소비추세													
Constant	2,520	2,533	3,597	.37	.111	.151	.131	.083	.184	.131	.379	.251	.157
R ²	.420												

*P<.05 **P<.01 ***P<.001 유의한 변수만 표로 작성하였다.

았으나 환경지향형 식생활 양식일수록 오히려 가족외식 빈도가 높았으며, 저연령층일수록, 부부만의 가족형태보다는 자녀가 있는 핵가족인 경우 가족외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님접대+가사편의품의 구매 증감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형태의 변화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공동의식지향형 생활양식, 따뜻한 추구형 생활양식, 주부직업(전업주부, 자영업), 가족형태(핵가족), 연령, 환경지향형 식생활 양식, 복고주의형 생활양식, 국제화 추구형 식생활양식의 순으로 유의하였다. 즉 주거형태가 확대되었거나 무변화 집단보다 오히려 축소된 집단에서, 우리공동의식형과 따뜻하며 복고주의적인 생활양식일수록, 주부직업이 단순고용직보다 자영업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핵가족보다 부부만의 가족형태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절약 식생활 대체서비스의 구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지향형이며, 국제화 추구형인 식생활 양식일수록 오히려 이에 대한 구매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변수별 소비품목별 구매 증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곡류와 유제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변화 변수가, 과일은 월평균소득이, 유자류와 빵/과자류는 주거 형태가 육류와 음료/주류/생수는 교육수준이, 건강식품은 식생활비의 증가비목 등 사회경제적 변수로 나타난 반면, 어개류는 고급·감성화 추구형이, 채소·해초류는 기능성식품 선호형이, 가공식품은 편의성 추구형이, 기호식품은 생산소비추세 추구형이, 수입식품은 국제화 추구형 등 식생활 양식 변수가 가장 독립적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 소비탄력성이 낮은 품목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소비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곡류, 육류, 과일 구매량이 감소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한 가계보다 감소되었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에서 곡류와 유제품에 대한 구매량이 감소한 반면, 축소된 주거형태에 비해 확대되었거나 변화무인 집단에서 유자류와 빵 및 과자류의 구매량이 증가하였으며, 부부만의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핵가족인 경우에 육류, 유제품, 빵 및 과자류, 음료/주류/생수, 가공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유제품, 빵/과자류, 건강식품, 기호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중졸보다는 고졸이나 대졸인 경우 육류, 음료/주류/생수의 구매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장 증가한 식생활 비목이 식비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비목(외식+기타비목)인 경우 과일의 구매량이 감소하였고, 식생활비가

변화가 없는 경우 육류와 건강식품의 구매량이 감소한 반면 음료/주류/생수의 구매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부직업이 단순고용직 보다 자영업인 경우 빵/과자류, 음료/주류/생수, 가공식품을, 사무/전문/경영직인 경우 과일, 음료/주료/생수를, 전업주부인 경우 음료/주류/생수와 가공식품의 구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MF로 인한 가장의 실적 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가계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업 주부들이 대거 취업전선에 나섬에 따라 경제 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전업 주부들의 저급직(단순고용직) 사회노동 참여로 인해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의 투입량은 줄어들어 가사노동관련 편의상품이나 서비스가 IMF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단순고용직이 아닌 집단인 경우 IMF이전에 비해 시장의존 소비품목의 구매량이 감소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생활양식이 투명·공정형일수록 육류와 유제품의 구매빈도가, 합리적 구매의식형일수록 육류, 과일, 빵/과자류, 기호식품의 구매빈도가, 합리적 경제의식형일수록 음료/주류/생수의 구매량이 감소한 반면 복고주의형일수록 채소·해초류와 건강식품의 구매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공동의식형일수록 음료/주류/생수와 수입식품의 구매량이 감소한 반면 곡류의 구매량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식생활 양식이 고급·감성화 추구형할수록 육류, 어개류, 채소·해초류, 과일, 가공식품, 기호식품의 구매량이, 기능성식품선호형일수록 어개류, 채소·해초류, 과일, 가공식품, 건강식품의 구매량이, 전통음식회귀 추구형일수록 육류의 구매량이, 편의성추구형일수록 가공식품의 구매량이, 생산소비추세 추구형일수록 기호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한 반면, 경제성 추구형일수록 과일과 유자류의 구매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식생활 양식이 건강식품선호형일수록 건강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한 반면 수입식품은 감소하였으며, 국제화 추구형일수록 과일, 빵/과자류, 수입식품의 구매량이 증가한 반면 건강식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IMF관리체제 1년 후 식생활 소비패턴과 그것의 형성에 관련되는 가족의 생활양식 및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인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의식 변화와 효율적인 식생활관련 소비시장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으

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일상적 생활양식인 사회/경제/가정생활양식은 7개요인(투명·공정성, 합리적 경제의식, 우리 공동의식, 따뜻함, 긍정적인 인생관 확립, 합리적 구매의식, 복고주의)으로, 구체적 식생활양식은 9개요인(고급·감성화, 경제성, 건강식품선호, 국제화, 기능성식품선호, 전통음식회귀, 편의성추구, 환경지향성, 생산소비추세)으로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가족들은 IMF 이전에 비해 투명·공정성, 우리공동의식, 따뜻함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식생활 양식 중 전통음식회귀양식을 나타낸 항목이나 환경지향성 생활양식으로 유형화된 항목들이 다소 높은 경향(5점척도)으로 나타나 국산 PB제품의 개발과 환경지향적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행태 변화를 소비행태의 합리성정도의 변화와 구매행태의 변화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번째, 식생활 소비행태의 전반적 합리성은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거의 변화없는 것(3.01/5점)으로 나타나 소비자 의식의 변환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조사한 결과

① 식단작성여부(2.72/5점), 식생활 개선 노력도(2.49/5점)로 파악해본 계획단계의 합리성은 IMF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된 결과(2.61/5점)를 보였다. 또한 식사 메뉴를 계획할 때 IMF 이전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가격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IMF에 의한 가계의 소득변화로 식생활 관련 상품의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는 저렴한 가격 구매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생활 계획으로 식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장 눈앞에 제시되지 않는 이득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의식 및 교육이 요구된다.

② 계획구매 정도(2.91/5점), 시장정보 탐색정도(3.64/5점), 시장정보 활용도(2.63/5점)로 파악한 전반적인 구매단계의 합리성정도(3.06/5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정보 탐색정도는 다소 크게 증가된 반면 소비자들의 정보 활용도는 낮았다. 따라서 IMF 이후 효율적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므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정책 강화 등 시장환경조성이 요구되어야 하며, 소

비자들이 탐색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 강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과 함께 왜곡·과장되지 않는 활용하기 용이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사용·처분단계에서의 합리성은 처분할 식품재료의 감소노력 정도(3.72/5점), 식품재료의 잔여물 활용정도(3.09/5점), 식사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정도(3.32/5점), 그리고 쓰레기 감소 참여도(3.35/5점)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37/5점으로 IMF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된 결과를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환경지향적 생활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재료 및 잔식의 재사용에 대한 그린소비자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 구매, 사용 처분단계의 합리성에 대한 관련변수(사회경제적변수, 가족의 생활양식·사회/경제/가정생활양식·식생활양식)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합리성은 가족의 생활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었고, 합리성 정도가 낮은 계획 및 구매단계에는 월평균소득이, 사용·처분단계에는 환경지향성추구형 식생활양식이 가장 큰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식생활의 계획 및 구매단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의식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번째, IMF 관리체제 이후의 식생활 구매행태의 변화에서 먼저 소비품목별 구매 증감도는 전 품목에서 감소경향(평균2.26/5점)으로 곡류(2.91/5점), 채소·해초류(2.74/5점)의 감소폭은 적은 반면 외식(1.81/5점), 수입식품(1.88/5점), 음료(1.93/5점), 손님접대 가공품등 편의식품과 편의품(1.96/5점)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나 가격 탄력성이 높은 품목의 구매 증감도는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식품유통단계를 축소화하고 물적유동을 선진화함으로써 유통비용의 감소를 지향해야 한다.

소비품목별 구매장소는 전 품목에서 동네 슈퍼/가게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어개류는 재래시장에서, 수입식품은 백화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등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할인 및 가격 지향으로 인한 대형 할인매장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소규모 점포들의 가격 및 상품정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식품점포별 상품 차별화 마케팅 전략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품목별 구매선택기준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안전성과 신선도의 순으로 고려하는 경향이었지만, 빵 및 과자류는 영양, 건강식품은 위생, 수입식품은 제조회사/상표명, 편의식품은 포장 등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고객지향적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제품속성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며, 제조회사 및 상표명을 고려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표시규제 등 정보공개정책에 대한 법규 및 행정 강화가 요구된다.

구매시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은 광고에 주로 의존하던 것에 비해 광고, 소비자정보원, 중립적 정보원 등 다양한 정보원을 고르게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나, 여전히 신뢰성이 높은 중립적 정보원보다 상업적 정보원(광고, 진열제품, 카탈로그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업적 정보원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규제의 강화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용이하게 해득할 수 있는 유용한 중립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소비자정보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불방법은 조사대상자의 72.5%가 현금 일시불을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며, 할인권과 쿠폰이용도는 2.88/5점으로 낮았고, 구매시 소지하고 있으면 활용하는 경향이 38.4%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할부는 일종의 외상이므로 신용카드 및 할부로 구매할 때는 미래의 지불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할인권 및 쿠폰이용으로 인한 과다 및 충동소비를 지양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식생활 소비품목별 구매 증감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총 구매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주부의 직업과 가족형태로 나타났으며, 외식과 손님접대, 가사편의품을 제외한 품목(가정에서의 식생활영위를 위한 순수식품)의 구매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형태에서만 유의하였다. 식생활 소비품목별 구매 증감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소비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곡류, 육류, 유제품, 빵 및 과자류, 음료·주류, 생수·가사편의품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가족외식은 일반적 생활양식(사회/경제/가정생활양식)에, 과일, 건강식품, 가공식품, 기호식품, 채소해초류, 수입식품, 어개류는 식생활 양식에 주로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시장의 세분화와 식품PB 개발을 위한 표적시장 선정 및 포지셔닝을 결정할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변수 특히 식생활 양식은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품마케터들은 보다 식품소비자의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식생

활 양식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그 식생활 양식에 따른 소비자의 프로파일을 분석함으로써 식품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고객지향적·사회지향적 마케팅을 구축해야 한다.

이상으로부터 효율적인 식생활 소비패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식품유통 단계의 축소화로 유통마진비용 감소, 국산 PB제품 개발, 할인매장의 식품의 PB제품 개발, 백화점과의 차별화, 유용한 정보 제공,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로 식생활 양식의 선정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소비자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합리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 변환 및 실천과 기업의 고객 및 사회지향적 마케팅 실천 및 정부의 효율적인 시장환경조성으로 다 함께 실천되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식품시장의 효율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 라이프스타일의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PB 제품개발을 위한 식품 PB 제품 이용도 및 만족도를 조사해야 하며,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할인 쿠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할인쿠폰에 대한 소비자문제와 활용 및 소비성향에 대한 조사도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

감사의 말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보건대학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1) 제일기획. 한국인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1995
- 2) 오세조. IMF 시대의 유통전략. 유통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유통학회, 1998
- 3) 권오영. IMF시대, 소비패턴 변화 및 경제전망. 현대 경제사회연구원 조사보고, 1998
- 4) 삼성경제연구소. IMF 충격 그이후. 1998
- 5) 한국소비자보호원. IMF 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1998
- 6) 엄선희. 소비자태도조사/97, 98분기별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 7) 송보경, 김자혜. IMF체제이후 소비행태의 변화. 소비자 시민의 모임(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확산대회), 1998

- 8) 유용주. IMF체제 1년간의 경제흐름,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169호, 1998
- 9) 장은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1998
- 10) 상공회의소. IMF시대의 소비행태와 구매패턴의 변화 조사, 1998
- 11) 코리아리서치센터. IMF시대의 소비자 태도 및 행동변화, <http://www.krc-ri.com>, 1999
- 12) 이광자. IMF이후의 가족생활 형태의 변화, 소비자 시민의 모임(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확산대회), 1998
- 13) 김미향, 한재숙.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6:109-122, 1988
- 14) 강이주. 선택적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26:113-127, 1988
- 15) 손경희, 문수재, 이명희. 도시 주부의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미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26: 53-66, 1988
- 16) 이기준, 이은영, 이기영, 황인경, 김민자, 김영옥.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 115-132, 1989
- 17) 박원봉. IMF체제이후의 식생활 유형변화, 소비자 시민의 모임(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확산대회), 1998
- 18) 강이주 · 박명희.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1: 20-36, 1990
- 19)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 <http://www.imf.org>, 1999
- 20) 김민정 · 박진선. 생활양식과 구매유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 1-21, 1997
- 21) 조형오.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 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7: 223-242, 1996
- 22) 김경훈. 소비자론, 형설출판사, 1998
- 23) 7대 일간지(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1997.11.1- 1999.6.30) IMF관련기사 검색결과분류/ 미발표자료
- 24) 문숙재 · 홍성희.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 153-169, 1988
- 25) 신현암 · 장상수. IMF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139, 1998
- 26) 이해임, 이진영, 김시월, 권오정, 이명숙. 소비생활과 재활용(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97-220(1998).
- 27) 김준환. IMF시대의 마케팅 4략,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8
- 28) 송태희.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1998